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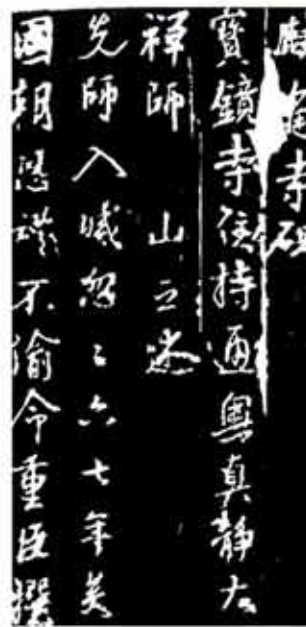
금석문 탁본 자료집성 필요

돌이나 금속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인 금석문은 우리 고대사 연구에서 필수적이다. 부족한 문헌 사료의 빈틈을 메워주며 당시의 제도와 사회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기 때문이다. <한국금석전문>(1984년)을 펴낸 허홍식 교수(한국장신문화연구원)는 "금석문은 한국의 고대사와 중세사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소재"라고까지 평가한다.

이원우 교수는 서예사나 조각, 문양 등 미술사적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비문에 새겨지는 문장은 대개 당대의 문장가가 작성하고, 글씨 또한 명필들이 쓰다 보니 서예사 연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금석문에 새겨진 여러 가지 문양이나 조각도 예술적 향기가 높으며,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해서 만든 백양사의 '만암스님 추사집자비'나 선운사의 '백파대사 비문'이나 봉덕사 예밀재종의 비천상은 탁본 수집가들도 최고로 꼽는 예술품이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비문 내용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장식이나 문양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탁본. 용 화상으로 인력하여 입체적으로 대조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고려 인각사 일연선사비 탁본.

조종원 교수(성균관대)가 편찬한 <한국금석문대계>가 금석문 탁본을 축소하여 수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내용 중심이다. 국내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도 상당량의 탁본이 소장되어 있고, 한국사나 서예와 관련한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실정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금석문 자료 6천여건을 영상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10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이 주축이 될 이 사업에는 탐미나 비석뿐 아니라 불상 광배의 조성기, 범종 명문과 문양, 암각화 등 금석문 자료가 총망라된다. 탁본과 사진은 물론 원문 검색까지 가능하도록 계획이다.

학술담당=권형진 기자 jenny@buddhapa.com

문헌사료의 빈틈 보완... 고대사 연구 필수 예술·문화·사회상 주요 자료 구실도 문화재청 10년간 6천여건 영상DB화

동에서도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그리기 위해서는 정박을 펴서 일반 연구자가 열람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홍식 교수는 "금석문에는 현대의 깊이 있는 안목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자의 식견과 각도에 따라서 확대하여 이용할 길이 넓게 열려 있다"며 "금석문 연구에서 사진보다 중요한 탁본의 원본

고 말했다. 그러나 금석문 탁본이 가지는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자료 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제 침략기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금석총람>이나 허홍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금석전문>, 지관 스님(가산문화연구원)이 펴낸 <역대고승비문> 등 금석문 자료집이 있긴 하지만 모두 활자본 형태로 나온 것들이다.

"흥륜사지 현 경주공고 자리"

박흥국 위덕대 학예연구실장 '신라문화' 기고

국가 사적 15호로 지정된 흥륜사지는 과연 신라 최초의 사찰 흥륜사가 있던 곳일까. 신라 철처기암(七處機) 중 하나인 영묘사지일까? 박흥국 위덕대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최근 발간된 <신라문화 20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에 기고한 논문 '역전 자료를 통한 영묘사지와 흥륜

사지의 위치 비정'을 통해 "현재 사적 15호로 지정된 흥륜사지는 영묘사지이며, 현재 위치에서 북쪽으로 500여m 떨어진 경주공고 자리가 흥륜사지"라는 주장을 내놓아 흥륜사 위치 문제를 둘러싼 학계의 논란이 또 한번 예상된다.



◇흥륜사지(사적 15호)에서 출토된 사명(寺名) 명문기와와 돌, 음은 같지만 각각 영묘사(靈廟寺·사건 원목) 대영묘사(大靈廟寺·오른쪽)로 한자 표기가 다르다.



경주시 사정동 281-1번지 일대가 흥륜사지로서 처음 알려진 것은 1910년대 일본인들이 경주지역의 절터를 조사하면서부터다. 그러나 1976년 '영묘사 명문' 기와가 수습되면서 이 일대가 흥륜사지라는 학설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경주지역 향토사학자들이 중심으로 이 곳이 흥륜사가 아니라 영묘사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교미술사학계의 원로인 황수영 전 동국대 총장과 진흥선 전 이화여대 박물관장은 "발사에서 건물을 보수하거나 중창할 때 본사에서 기와를 가져다 쓸 수 있으므로 흥륜사에서 영묘사라는 명문 기와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의 흥륜사가 영묘사 터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며 기존 '흥륜사설'을 고수해 왔다. 박실장이 주목한 것은 음(音)은 같지만 다른 한자로 표기된 명문기와다. 현재의 흥륜사지에서는 각각 '영묘사(靈廟寺)' '영묘사(靈廟寺)'라고 적힌 기와가 출토되고 있는데, 다른 절터에서는 이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없다. '흥륜사' 명 기와가 다 른 절에서 출토된 적은 있지만 '흥륜사(皇龍寺)'라는 한자 표기가 같다. 박실장은 "이처럼 다양한 절 이름 명문기와가 발굴되면 이 곳이 영묘사지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경주공고 자리를 흥륜사 터로 지목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박실장은 "경주공고 부근에서 발견되는 6세기 무렵 암 수키와는 여기가 진흥왕 5년(544)에 창건되었던 흥륜사지임을 의심할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영묘사는 7세기인 선덕여왕 4년(635)에 창건된 절이다.

불교사상 - 서양철학의 비교

김종욱 박사 '용수와 칸트' 출간

서울대 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불교사상을 서양 철학과 접목시켜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려는 작업을 해 온 김종욱 박사(동국대 강사)가 용수(150~250 추정)와 칸트(1724~1804)의 사상을 비교한 <용수와 칸트>(문주사)를 최근 펴냈다. 불교 사상을 서양 철학 혹은 철학자와 비교하려는 시도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대표 선수 격인 두 사람을 직접 대면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

렇다고 심볼리 칸트의 이론으로 용수의 '공(空)' 사상을 재해석하거나 용수의 불인에 칸트를 가둬놓지는 않는다. 김 박사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용수와 칸트가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형성해 간 과정이다. 김 박사는 "용수와 칸트는, 실재론적 경향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사상적 출발점으로 삼아 인식의 한계를 밝히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을 밝힌다. 물론 두

사람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실재론의 내용이나 인간이 인식에 한계를 가진다고 설정한 이유는 다르다. 칸트가 이론이 아닌 실재성으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용수는 자비와 방편력에 입각한 반이비리함을 강조한다. 김 박사는 독창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 '학습을 위한 비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각자의 사상사에서 정점의 위치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 불교 사상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교 사상을 2천년 전에 머물러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살아 있는 텍스트로 재해석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 취추바이의 대중노선 불교사상 영양 받은 것"

조현국 총북대 강사 발표

중국에 마르크스 영접 저작을 최초로 번역 소개했고 1927-8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지낸 취추바이(瞿秋白, 1899-1935)가 청년 시절 불교사상을 접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1919년 5·4운동 이후 본격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의 길을 걷고 나서는 불교 사상과 갈라섰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조현국씨(총북대 강사)는 8월 31일 열린 중국어 문학연구회 6회 학술발표회에서 종래의 이 같은 시각을 부정했다. 조 씨는 '취추바이, 불교 사상의

영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1920년대 이후에도 불교사상은 취추바이 사상 내에서 사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고 그의 독특한 '대중 노선'을 구상하게 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지식인과 대중을 돌이 아니라고 본 취추바이의 대중노선은 프롤레타리아당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론과는 달리 소수의 전위성보다는 대중의 농동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을 물질적 생산력이나 사회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러시아 군중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혁명성이라고 한 부분이다. 조 씨는 "평범한 사람들의 개별적인 마음이 모여 러시아 사회 심리를 형성하여 혁명을 일구어 냈다고 생각한 대목은 바로 '진어(眞)는 중생들의 마음(一切에 있다)고 하는 <대승기신론>의 핵심 사상(一切一切一切)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 아이 핸드폰에 수능시험 때까지 기도 메시지 매일 뜬다."

대학입학 수능능력시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

자녀들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 주기를 부처님께 애써게 기원하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한마음으로 기도성취를 이루시기 기원하는 바입니다.

사실, 공부에 너무 바쁜 수험생 자녀에게 잘되기를 바란다는 부모님들의 마음조차 표현하기 어려우시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이같은 애뜻한 마음을 저희들이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수능 성취를 위한 기도문을 택의 자녀 핸드폰에 108회(매일 하루 3차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세대인 택의 수험생 자녀들은 무의식 속에 부처님의 가피로 든든함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연락주시요.

수능 성취를 위한 기도문 핸드폰 발송 서비스

- 행사일정 : 2002년 10월 1일 - 2002년 11월 5일(36일간)
- 행사방법 : 하루 3회 수험생의 휴대폰에 축원문 발송(총 108회)
- 축원시간 : 오전 6시 / 정오 / 오후 6시
- 축원내용 : 시험무사성취와 합격기원문
- 동참문의 : (주)지도리 (02-725-9787)
- 접수기간 : 9월 1일 - 9월 28일
- 동 참 비 : 30,000원

* 본 서비스를 통해 조성된 동참금의 일부는 스님대상 무료 컴퓨터 교육사업에 진행되는 불교문화정보연구원의 기금으로 전달됩니다

